

本社 〒130 東京都墨田区江東橋4-6-4
TEL (03) 6 3 3 - 7 4 7 7 (代)
FAX (03) 6 3 1 - 7 7 0 3

金信

主題として掲げている『新しい時代に向かう教会婦人の働き』にふさわしく特に若い世代が参加できるような役員の方々がご配慮くださり、関東で開かれたにもかかわらず全国より七三名の参加者がありました。

今回は、婦女局長・金元治牧師、主題講師として金敬得弁護士、聖書講師として名古屋学院大学前学長・梶原寿教授をお招きし、教会における婦人達の在り方に様々な示唆を与えていただきました。

モニ学校（日本語学習）における新一世との関わり、若い婦人層の多様化と共存について、信仰の継承、教会における女性差別、教会生活での自分と他者における信仰告白等、私達の誰もが抱えている悩みを代弁していたといえるでしょう。

二日目は分団において活発な討議がなされ、三日目の全体討論の各分団報告では、次の様な討議事項に集約されました。

(1)教会の中の聖書研究
在日の歴史、ウリマル

まず、第一日目は、分団
の中で、自己紹介と各個教
学の充実
(2)家庭礼拝を持ちつつ信



で終わりましたが、(1)子弟の民族教育と信仰の継承、(2)二・三世がとどまっていた教会づくり、(3)2の爲の教役者の養成(牧師という視点が、私達のめざす目標として確認できました。

招請したそれぞれの講師も私達の問題意識の焦点にあった内容で、主題講演をしてくださった金敬得弁護士の『九一年問題と在日の在り方』のお話しのなかで『在日が生まれて民族意識に目覚めるまで二〇才であればマイナス二〇点になっている。〇から自己を回復

しい社会にあつて地の塩となる働きをしてほしいと願っているはずで、その為にはまず私達自身
が挫折することなく夢を持たなければならぬでし
う。また教会にあつて婦人達の役割を自ら制限する
ことなく積極的な働き人となるためにも「他者を生かす
ことによって自らが生かされる」という信仰の鍛練が
必要になつてくるでしょう。様々な課題と希望に満ち
て、まず個々の教会から何を始めしていくのかと帰途の車中で話しが弾みました。

『いと小さな者と共に』あったキリストにならない、初めての参加者が隠れることなく自由に発言できる雰囲気の中で、個教会での具体的な取り組みに帰される形キリストにあって生きては

아있다. 젊은 일꾼도
데의 背後에 어머니유니
게의 거짓이 없는 信仰
의 教育이 있었다 (뒤해
一·五) 사물엔의 背後에
는 어머니 한나의 懇切한
눈물의 祈禱가 있었다 (삼
上一·十二·二〇) 모세의
背後에는 어머니 요게벳의
애담은 祈禱의 信仰이 숨
어 있었다 (出二·一十)
第三世紀暗黒世界를 真理
의 빛으로 바꾸어 놓았는
어거스틴의 背後에는 어머
니 모니카의 눈물겨운 祈
禱의 能力이 있었다.
그러나 現實에 信仰의

또한 父母를 咀呪하는 者
는 그 燈불이 幽暗中에 꺼
짐을 當히라고 하나니
이 말술하섯기때문이다(歲
二〇・二〇)。
今年에도 어머니主日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더나
의 어머니는 어떠한 부
이신가? 에 대해서 살펴
보면서 恩惠를 받고자 하
다。

一、肉身 어머니
(1) 犧牲과 忍耐의 어머
니다. 어머니란 히브리語
로 '애'이라고 하는데 그
뜻은 일꾼이란 말이다.
일꾼은 手酷하며 땀흘리

短點을 把握하고 長點을 살려 고치주는 勇氣와 知惠가 絶對로 必要하다.

二、神靈한 어머니

(1) 하나님 말씀이 곧 信者들에게 있어서는 어머니이다. "自己의 뜻을 아 真理의 말씀으로 우 리를 낳으셨는니라"(약 一·十八).

使徒パウロ는 "그리스도에 수 안에서 福音으로써 내 가 너희를 낳았음이라"(고 前四·十五) 하나님의 말씀은 강패나 不良子息을 거듭나게 하는 能力이 있다. "말씀으로, 福音으로

게 있어서 神靈한 어머니
다. 오직 위에 있는 예
루살렘은 自由者니 곧은 예
리의 어머니라(갈 4:26)
참된 教會는 위에 있는
天國과 連結이 되는 곳이
요. 地上의 참된 教會는
靈의으로 信者들의 어머니
가 된다는 뜻이다.

結論의으로 肉身의 子女들은 父母에게 孝道
은 主님과 教會에 孝道
하고 사랑하고 忠誠해야
할 義務가 있다. 그러한
여 땅에서도 잘되고 長
壽하여 子子孫孫 靈肉間
의 福을 누리며 살자.

이 世上에 存在하고 있는 内容 중에 가장 貴한 存在는 人間이다. 人間들 중에 더욱 高貴하고 寶배로운 存在는 어머니다. 어머니에게는 變함없는 高貴한 犧牲이 숨어있고 特別 信仰의 어머니에게는 하나님과 冥을 움직이는 能力의 祈禱가 숨어있다.

個人的 興亡도 國家의 興亡도 父母를 얼마나 잘 섬기는냐에 左右된다. 그 理由는 主안에서 父母에게 順從하는 者는 잘되고 從에서 長壽하리라는 哈나님의 約束이 兌될 수없는 까닭이요(엡六:一) 反面에 父母를 咀呪하는 者는 마땅히 죽어야 하는 까닭이요(出二:十七)。

慈母에게는 敗者가 있어
도 賢母에게는 敗者가 없
다는 말이 있다. 사랑받
으로 子女을 처할 때는 不
良한 子息이 나오고 子
女에 처한 지나친 사랑은 不
自立精神과 生活의 勇氣
를 잃어버리게 한다.

賢母에게는 사랑과 知
恵와 信仰의 勇氣가 必
要하다. 그래서 아이들의

(3) 참된 敎會가 信者에
고 養育한다. 그러므로 민
음은 信者에게 있어서 神
靈한 어머니가 된다는 意
味이다.

마태복음 12 : 46~50

李 應 周 牧師 (岡崎教会)

靈的面에 能力이 있는 主의 일꾼들이 信者들의 家庭에서、敎會에서 나오지 않고 있는 理由가 무엇일까? 그리고 왜 世上이 더 惡하여지며 悲慘해지고 있는가? 그것은 몇가지의 罪때문이다. 먼저 父母를 拒逆하는 子女들의 罪요. 다음에 어른들을 拒逆하는 젊은 사람들의 罪요. 그리고 하나님을 拒逆하는 人間들의 罪때문이다. 다른面으로、父母가 子女를 버린 罪요. 또한 子女가 父母를 버린 罪요. 그리고 人間이 하나님을 버린 罪때문이다. 또 다른面으로는、敎役者들이 敎人을 버린 罪요. 또한 敎인들이 敎役者들에게 反逆한 罪요. 그리고 하나님의 眞理를 버린 敎人들의 罪때문이다.

머 어려운을 참는 것을 낳았다“ 이 말씀은 새로운 사람을 만드는 能力이 있는 말씀에 있다는 뜻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오는 사랑의 能力과 重生케 하는 能力을 가리키는 말씀에 있음을 示한다. 賢母의 말씀은 人間속에서 나오므로 人間의 힘에 不過하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오는 神靈의 能力이 숨어 있다. (2) 믿음은 信者에게인하여서 神靈한 어머니다. 어머니없는 子息이 없는 것같이 믿음없는 하나님은 子女가 되지 못하십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生命的 禮物이다. 어머니는 生命的 寶이다. 어머니 世上에 慈母는 많아도 賢母는 드물다는 말이 있다.



〒541 大阪市東区船場中央4丁目1

〒490-11 愛知県海部郡大治町大字砂子字村東2336
電 話 (052) 431-3156(代)
F A X (052) 431-3190

서울連絡処：ホテル牧山 02-739-2917
《在日同胞のホテル利用者には30%割引》

金榮淑伝道師が

宝塚伝道所に就任



金榮淑伝道師

昨年二月二十四日午後三時半、西部地方会 宝塚伝道所 金榮淑伝道師の就任式が、百余名の参席者で、恩恵롭게 마쳤다.

第一部 就任式 金榮淑伝道師の就任式は、金榮淑伝道師の紹介と誓約宣誓が 있었다. 이어서金得三牧師(西宮教会)의 勸勉、總代表 金安弘總務

就任式 場所 宝塚民 第二部 就任式은 堂會長의 司式 아래 就任하는金榮淑伝道師 紹介와 誓約宣誓가 있었다. 이어서金得三牧師(西宮教会)의 勸勉、總代表 金安弘總務

長 金德化牧師(神戸東部教会) 司會로 시작하여李昌雨牧師(明石教会)의 祈禱가 있은後 李聖雨牧師(武庫川教会)의 「強하고 담대하라」(二十一・一九)는 說教가 있었다.

第二部 就任式은 堂會長 金吉雄長老의 祝電披露가 있은후 金榮淑伝道師의 答辭、西部地方會 辛鐘國牧師(神戸教会)의 祝禱로 취임식을 마쳤다.

夫人會 關東地方連合會에서 開催했다. 第一部 連合聖歌의 밤. 禮拝는 尹貞鉉書記의 司會、連合聖歌隊 指揮는 金元洙執事가 담당했다.

連合禮拝는 鄭再鉉執事の祈禱、金英實執事の聖書奉誦、李仁夏牧師의 「절망속에라도 희망을 안고 가는 나그네」(본문 누가二十四・三三・三五)題下의 說教가 있었다.

이어서 各教會 聖歌隊의 讚揚、四重唱、마이올린 연주 등으로 순서가 진행、地方會長 金君植牧師의 祝禱로 連合聖歌의 밤 禮拝를 마쳤다.

第二部는 李光子執事の司會로 交際의 時間을 나눴다. 이交際의 時間에는 各教會夫人會에서 準備한 飲食을 나누며, 즐거운對話를 나누기도 했다. 모는 参加者는 約百六十名.

夫人會 關東地方連合會에서 開催했다. 第一部 連合聖歌의 밤. 禮拝는 尹貞鉉書記의 司會、連合聖歌隊 指揮는 金元洙執事가 담당했다.

連合禮拝는 鄭再鉉執事の祈禱、金英實執事の聖書奉誦、李仁夏牧師의 「절망속에라도 희망을 안고 가는 나그네」(본문 누가二十四・三三・三五)題下의 說教가 있었다.

名古屋教会婦人会活動

生花教室開き講壇を花で飾る

名古屋教会の婦人会では、主の業に参与する場として、礼拝堂の講壇にお花を生ける任務を与えられています。名古屋教会は在日の数ある教会の中でも一番大きい教会といわれ、講壇の花もお花と香りでいっぱいになる



名古屋教会婦人会の生花教室会員一同

りますので、ある程度の花の心得を必要とされます。これから先の事も考え、主の働き手の養育として生ける花教室を持つのに、礼拝部部長張鍾善長老の賛同を得て、四月より生ける花の習得を試みる事になりました。

華道流心流家元・清水榮志師匠(華道歴五〇年)を迎えて、毎月二回、第二・四土曜日午前十時〜十二時迄の生ける花教室を開始することになりました。趣旨にと

もない信徒の交わり、教会地との交流、伝道の場として用いられればと願い、婦人会員に限らず、本国より来ている夫人、未婚者、日本人と幅広く、お年寄りも交えての会員数二九名から成り、四月十三日第二土曜

日午前十時、教室開始に婦人会顧問である盧政一牧師より「花のように美しい心でお互いに愛を分かち、信仰を深め交わりの中から豊かな信仰の花を咲かせる事ができるように」と祈りがありました。

花と香りでいっぱいの教室に、お年寄りも若い人も習得するの熱心で、目の前の花をより美しく生けるうと慣れない手つきで、試案試行しつつ生けている姿はとて穏やかで、和やかな雰囲気の中に進められました。

この集いを通して普段よりも得なかつたそれぞれの交わり、コミュニケーション

室に、お年寄りも若い人も習得するの熱心で、目の前の花をより美しく生けるうと慣れない手つきで、試案試行しつつ生けている姿はとて穏やかで、和やかな雰囲気の中に進められました。

この集いを通して普段よりも得なかつたそれぞれの交わり、コミュニケーション

室に、お年寄りも若い人も習得するの熱心で、目の前の花をより美しく生けるうと慣れない手つきで、試案試行しつつ生けている姿はとて穏やかで、和やかな雰囲気の中に進められました。

復活節音楽礼拝

婦人会関東連 開催

夫人會 關東地方連合會에서 開催했다. 第一部 連合聖歌의 밤. 禮拝는 尹貞鉉書記의 司會、連合聖歌隊 指揮는 金元洙執事가 담당했다.

連合禮拝는 鄭再鉉執事の祈禱、金英實執事の聖書奉誦、李仁夏牧師의 「절망속에라도 희망을 안고 가는 나그네」(본문 누가二十四・三三・三五)題下의 說教가 있었다.

이어서 各教會 聖歌隊의 讚揚、四重唱、마이올린 연주 등으로 순서가 진행、地方會長 金君植牧師의 祝禱로 連合聖歌의 밤 禮拝를 마쳤다.

第二部는 李光子執事の司會로 交際의 時間을 나눴다. 이交際의 時間에는 各教會夫人會에서 準備한 飲食을 나누며, 즐거운對話를 나누기도 했다. 모는 参加者는 約百六十名.

夫人會 關東地方連合會에서 開催했다. 第一部 連合聖歌의 밤. 禮拝는 尹貞鉉書記의 司會、連合聖歌隊 指揮는 金元洙執事가 담당했다.

連合禮拝는 鄭再鉉執事の祈禱、金英實執事の聖書奉誦、李仁夏牧師의 「절망속에라도 희망을 안고 가는 나그네」(본문 누가二十四・三三・三五)題下의 說教가 있었다.

室に、お年寄りも若い人も習得するの熱心で、目の前の花をより美しく生けるうと慣れない手つきで、試案試行しつつ生けている姿はとて穏やかで、和やかな雰囲気の中に進められました。

諸職訓練の手引書 ④

諸職の家庭生活 X

尹 宗 銀 牧師 (横浜教会)

不動産業務全般

免許番号・愛知県知事③第5426番

太栄企業株式会社

代表取締役 金 光 洙 (名古屋教会 長老)

事務所 名古屋市熱田区川並町2番21号 (名古屋市中中央卸売市場入口南側太栄ビル)
電話 052(682)1177 (代)
自宅 名古屋市千種区御影町2-55-5
電話 052(711)4398

韓国そうざい・食肉加工 食品輸出入・各製造販売 高山食品株式会社

代表取締役 元 洪 植 (福岡教会 長老)

本社 〒816 福岡市博多区東那珂3丁目9番26号
電話 (092) 461-0055 (代)
自 宇 (092) 471-0258 番
FAX (092) 461-0090 番

※おいしい김치・고추장・떡국発送いたします。

博宝工業株式会社

代表取締役 沈 榮 吉 (福岡教会 長老)

〒812 福岡市博多区大博町13-22
TEL (092) 271-2126 番
FAX (092) 272-1855 番

(株) 京都メッキ

社 長 芮 戊 冀 (京都南部教会長老)

〒601 京都市南区東九条南岩本町2-2
電話 075-681-6391

③

十一月 같은 場所에서 열린 学生会 編集部 主催 聯合雄弁大會에는 八 名이 出席하였는데, 注 方策을 강구해야 한다" 고 裁외자에게 보내었다. 卽

第三十一回總會

加工貿易
安田商事
代表者 安 秉 玄
(熊本教会 長老)
〒862 熊本市水前寺六丁目七ー17
電話 0962-81-0051 承